

북한의 돈표 발행 현황과 의미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김미연 (nkkmy83@kdb.co.kr)

- ◆ '79년부터 외화상점의 수입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한 '외화와 바꾼 돈표'는 '02년 폐지 이후 최근 '돈표'라는 이름으로 재등장
- ◆ '돈표'는 시중 외화흡수를 통해 재정악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
 - '돈표'는 발권주체, 사용처, 교환비율, 권종 등에서 과거 '외화와 바꾼 돈표'와 차이
- ◆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상황에서 '돈표' 발행은 시중 화폐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발생이 불가피하며, 외화거래 억제로 인한 환율하락이 예상

□ 과거 북한은 외화유통 통제를 위해 외화를 특수화폐인 '외화와 바꾼 돈표'*와 교환**하여 사용하였으나 '02년 '7.1경제관리개선조치' 이후 폐지

- '외화와 바꾼 돈표(舊 돈표)'는 '79년부터 '02년까지 외화상점에서 판매하는 수입 물품 구매 용도로 사용
 - '舊 돈표' 발행 남발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으며 '7.1조치' 당시 가격·급여·환율 현실화 조치 등과 함께 '舊 돈표' 제도 폐지
 - '7.1조치'의 일환인 환율 현실화 이후 장마당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외화거래를 북한당국이 암묵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화유통 확대

* 돈표는 舊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·기관의 외화 보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

** 달러 등 환금성이 좋은 국가의 화폐는 '청색', 환금성이 좋지 않은 사회주의권 국가의 화폐는 '적색'으로 교환

□ 최근 '돈표'가 재등장*하였으며, 시중 외화흡수를 통해 재정악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

- 달러라이제이션(Dollarization)**에 대한 대응조치로 '돈표'를 통해 외화 사용을 통제하고 시중 외화를 흡수
 - 시장거래에서 외화를 '돈표'로 대체하여 북한 내 외화 사용 금지***에 대한 주민 반발을 줄이고 장마당이나 개인 간 외화의 직접 거래를 점진적으로 제한

* 아시아프레스(2021.11.13), "북한 <절대비밀> 문서 입수... 재정 악화로 지폐 발행 정지 인정, 임시 금권 '돈표'로 인한 혼란도 적나라"

** 자국 통화보다 외화가 실질 화폐로 선호, 통용되는 현상으로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

*** '20.10월말부터 북한당국은 평양 소매점에서 외화 등을 받지 않고 원화 지불 요구(VOA '21.9.25자)

-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무역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, 외화 부족 등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'돈표' 발행
 - 당국의 재정악화로 공장, 기업소 등 경영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, 임시 '돈표'를 통해 자금 조달

□ '돈표'는 발권주체, 사용처, 교환비율, 권종 등에서 '舊 돈표'와 차이

- '돈표'는 조선무역은행*에서 발행하던 '舊 돈표'와 달리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
 - 내화 발권기능을 지닌 조선중앙은행이 발행처라는 점에서 '돈표'를 외화뿐 아니라 내화와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
 - * 외환업무 전문은행으로 중앙은행 지도하에 외국과의 무역 및 무역외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전담
- 외화상점에서 수입 물품 구매 목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던 '舊 돈표'에 비해 사용처 다양
 - '돈표'는 현금과 같은 지불수단으로 기관·기업소·공장경영 관련 자금, 종업원 급여 등에 사용
- 교환비율은 1달러가 '돈표' 5천원이며, '돈표'와 내화(북한원)는 동일 가치
 - * '舊 돈표' 교환 비율은 1달러 = 2.21원('舊 돈표') = 미상(북한원)
- 권종은 '舊 돈표' 8종(1·5·10·50전, 1·5·10·50원)과 달리 현행 내화 최고액과 동일한 5천원권 1종

외화와 바꾼 돈표(舊 돈표)



자료 : 한국문화정보원(www.kogil.or.kr)

돈표



자료 : 데일리NK('21.11.9)

과거 '외화와 바꾼 돈표(舊 돈표)와 최근 '돈표' 비교

구분	외화와 바꾼 돈표(舊 돈표)	돈 표
발행·유통시기	'79년~'02.6월	'21.9월(추정)
발행배경	시중 외화유통 차단	시중 외화흡수
용도	외화교환	외화 및 내화교환
발행처	조선무역은행	조선중앙은행
발행권종	8종 (1·5·10·50전, 1·5·10·50원)	1종 (5,000원)
교환비율	1달러 기준 2.21원 ※ 북한원 : 미상	1달러 기준 5천원 ※ 북한원 : 5천원
사용처	외화사용처	현금사용처

자료 : 언론보도 자료 종합

□ **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상황에서 '돈표' 발행은 시중 화폐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발생이 불가피하며, 외화거래 억제로 인한 환율하락 예상**

- 국경봉쇄로 인해 무역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'돈표'의 일시적 공급 증가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을 유발
 - '돈표'의 액면가는 5천원(북한원)으로, 1달러와 교환 시 화폐 5천원의 시중 공급을 의미하며, 대량의 일시적 통화량 증가는 물가상승을 유도
- 기관·기업소를 중심으로 '돈표' 교환을 강제하는 한편, 외화상점 축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외화사용 및 보유 필요성을 감소시켜 환율하락 지속 예상
 - '20.10월 對中수입축소조치 이후 환율이 8천원대에서 4천원대로 급락한 상태에서 외화거래 억제는 환율하락 현상을 지속